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극도 신중해야”

KEI 환경포럼 강연자 참석...“그린벨트 미래 위해 중요”

“용산공원, 시민들에게 생태공원으로 돌려줄 것” 강조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정부 측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적 실천의 움직임’을 주제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청중의 질문에 “인구는 점차 출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함께 잘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용산공원 역시 온전히 시민들에게 생태공원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시장은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이 100년만에 돌려받는 성지다. 함께 지켜야 하는 곳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용산공원 자리에 호시탐탐 박물관과 같은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당연히 반대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임 후 서울시에는 120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향후 4년 동안 2000만 그루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나무를 많이 심

고 숲을 잘 가꾼다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기후변화회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과 경험, 인력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의 참여가 있어야 제대로 이뤄진다는 자각이 있어 도시 시장들의 역할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구 면적의 8%를 도시가 차지하고 있지만, 탄소 배출의 70%는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11년 취임 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서울의 약속이라는 2005년 대비 2020년에는 10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며 “서울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도도 본래 2.8%에서 6%까지 크게 올랐다. 앞으로 저희들은 2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원동력은 ‘시민 참여’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시민 참여에 의한 성과다”라며 “에코마일리지 198만명, 에너지 수호전사단이 11만명 등이 참여했고, 이는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좋은간판 공모전 대상 ‘1인식당 봄’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366점 응모 19점 수상

건물·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성 있는 간판을 뽑는 공모전에서 ‘1인식당 봄’이 대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6월1일부터 7월13일까지 좋은간판 부문, 창작간판 부문, 간판개선지역 부문 등 3개 분야 총 366점의 응모작을 접수했다. 4차례 심사를 거쳐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디자인 수준이 우수한 개성 있고 창의성이 뛰어난 작품 19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좋은간판 부문 대상을 받은 ‘1인식당 봄’은 한식과 양식을 그림문자로 바꾼 형태다. 식당이란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고 흰색과 검정색을 교차로 써 식별하기 쉽다. 외로울 수도 있는 ‘혼밥’의

느낌을 ‘봄’이라는 상화를 통해 따스한 감성으로 비유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높고 간단하면서도 율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시는 평가했다.

창작간판 부문 대상을 받은 ‘그린타임’은 시계와 빨대의 형상을 활용해 현대 직장인들의 생활방식과 음식문화 흐름을 식별하기 쉬운 디자인으로 표현했다.

수상작품은 서울시청 홍보물과 서울시 간판개선사업 자료로 활용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각종 간판 디자인 자료와 교육 자료 등으로 쓰인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름다운 간판, 좋은 간판을 간판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울의 도시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수립+예산집행 직접...서울 청년자치정부 내년 3월 출범

청년청, 서울청년의회 설치...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



2일 오후 서울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서울청년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 최초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출범시킨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4급)이 청년청으로 개

편된다. 현재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약 2배로 키운다. 청년청을 책임지는 청년청장(4급)은 개방형 직위다. 청년자치를 잘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청장으로 임명한다.

서울청년의회는 그간 연 1회 열렸지만 앞으로는 상설 운영된다. 역할도 확대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속의, 결정 등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한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의 요구가 많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의 청년자율예산 확보를 계획한다. 서울청년의회가 속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500억원 규모 예산안을 직접 짤다.

시 산하 모든 위원회의 청년(만 19~34세) 비율이 평균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장 전 영역에 세대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1000명 규모 ‘서울미래인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청년인지예산제도 도입된다. 시각·국·분부에서 모든 예산 편성시 청년청과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마을기업 등에 혜택을 주는 ‘청년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재능과 가발한 생각은 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 사업 참여기회를 얻지 못했던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

래혁신프로젝트가 가동된다. 미투 운동,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직장 내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권익침해와 성범죄 등 청년세대 관심도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청년자치정부는 의제 발굴을 위해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사업 기획~추진 과정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업·단체가 청년자치정부와 협업한다.

시는 “서울의 만 20~40세 청년 인구는 전체 서울인구의 31%지만 올해 6월 열린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약 8%로 아직 청년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면 해외 여러 사례를 보면 38살의 재신터 이던 뉴질랜드 총리, 35살의 구스타프 프리들린 스웨덴 교육부 장관처럼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서울시장이 함께 책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원호 서울취재본부장

메르스 일상접촉 외국인 20명 ‘오리무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입국한 외국인 20명이 서울 시내에 머물고 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A씨 입국 후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10일 오후 6시 기준 일상접촉자인 외국인 20명이 서울에 머물고 있지만 구체적인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외국인들이 입국시 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당초 목적지는 용산구·중구에 각 6명, 종로구·영등포구·강남구에 각 2명, 마포구·강동

구에 각 1명이었다고 시는 밝혔다. 시가 입국시 거쳐로 기재한 호텔 등 숙박시설을 찾아가 확인했지만 이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질본과 서울시는 해당 외국인들의 정확한 국적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국적은 확인이 안 된다. 확인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첫날에 비해 자치구 협조로 미확인자들을 많이 찾아내고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